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면 먼저 행동하라”

제8기 무등CEO 아카데미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이사 '백지상상'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상상’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저질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이사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무등CEO 아카데미 하반기 첫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늘이 캔버스라면 전투기로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한국에서 상표를 가장 많이 디자인한 그래픽 디자이너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동화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 버려진 소주병과 불룩으로 벽을 만들고 창을 내어 집을 짓는 사람, 망해가던 남이섬을 기적처럼 부활시킨 사람.

강 대표를 지지하는 수석어플이다.

강 대표는 특히 빛 덩어리에 술병만 나도는 불모지였던 남이섬을 연간 33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100대 관광지로 변화시킨 ‘남이섬 신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여러 갈래로 지나온 그의 삶은 ‘상상’과 ‘역발상’으로 귀결된다.

강 대표는 자유상상의 시대, 상상브랜드시대를 강조하며 ‘남이섬 신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이섬 신화’ 장본인, 역발상 강조 “상상력 통해 자신의 것 만들어야”

그는 “당시 남이섬은 누가 봐도 망해가는 곳이었지만 ‘불가능도 자원이야’는 역발상으로 새 출발했다. 유원지를 관광지로 바꾸고 소음을 리듬으로, 경치를 운치로 바꿨다”며 “쓰레기도 자산으로 활용했다. 빈 소주병은 트리와 꽃병, 보도블록, 조명등 등으로 탈바꿈 시켰고 자갈에 편지를 쓰고 돌담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어 “쓰레기를 ‘내버리다’가 아닌 ‘써버리다’라는 생각으로 장난스럽게 재활용하니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곧이어 명소가 되더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며 “장난기가 있을 때 집중력은 최고조가 된다. 지금의 남이섬은 그렇게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투기로 하늘에 그림 그리기를 시도하는 등 상상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998년 하늘을 도화지 삼고 전투기를 붓 삼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상상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목표로 이어졌



4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무등CEO 아카데미 초청강연에 나선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이사가 ‘남이섬 신화’ 예를 들어가며 상상 브랜드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고 전투기를 빌려 스카이드로잉(skydrawing)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독보적인 스타일로 나만의 소재를 찾는 것이 브랜드 시대의 성공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강 대표는 “내 제품, 내 상품, 나의 서비스를

인지시키려면 ‘너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고 조언했다.

제주도에서 제2의 남이섬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는 사업 재원 조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돈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일단 돈 대신 사람을 벌어야 한다”며 “은행에 10억원을 넣고 지출한 만큼 다시 채우는 식으로 예산을 썼다. 5년 가까이 10억

원을 쓰며 건물 4동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두배로 늘려 월급에 3배만 벌여오게 했다. 공부, 성적, 아이큐 보통인 사람만 뽑는다면서도 뭐든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았다”며 “일이 힘들어도 직원들 스스로가 배우고 성장한다고 느낄 때 유능한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유대원기자 ydy2132@srb.co.kr



LX 광주전남본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전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도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는 5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권 본부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병을 치료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기자 haita2000@srb.co.kr

조완주 조선대 교수, 광주경찰청 무도 연구지도관 위촉

조완주(42·유도6단) 조선대 체육학과 교수가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경찰 무도 연구지도관으로 위촉됐다.

조 교수는 앞으로 광주지방경찰청 경찰 무도 연구지도관으로서 3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광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의 체력 증진, 경찰체포술, 무도지도 및 연구 활동 등 무도훈련과 체력단련을 총괄, 지도하게 된다.

그는 “광주지방경찰청 경찰무도 연구지도관으로 주어진 소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광주 경찰의 무도, 체력향상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완주 교수는 완도 출신으로 광주급 남중, 광주인성고, 조선대, 광주시체육회 소속 유도 선수로 활동한 전문 유도인이며, 대한유도회 1급 심판, 1급 지도자 자격보유자로 현재 광주시 유도회 상임 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서 전남 작가 16명 수상

전남도는 ‘제49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김유성 토우 대표가 공동 출품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

하는 등 16명의 작가가 입상,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김유성 대표는 ‘청자연리은채다기세트’로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또 이문석 공예인이 대나무 낚시대를 출품해 국립무형유산원장상을 받았으며, 이외에 장려상 2명, 특선 5명, 입선 7명이 입상했다.

김 대표는 제19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청자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공예인은 ‘승작 대나무 낚시대’ 공예인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옛 전통 방식으로 대나무 낚시대를 제작하고 있다.

1971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은 공예부문의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유서 깊은 행사다. 해마다 우수 공예품을 발굴해 선정하고, 전시를 통해 공예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16개 시·도별 예선을 통과한 454개 작품을 대상으로 4차에 걸친 심사를 거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김유성 토우 대표의 ‘청자연리은채다기세트’. 전남도 제공

쳐 최종 234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에선 지난 7월 ‘제49회 전남도 공예품대전’에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상을 받은 25개 작품을 본선에 출품, 이 가운데 16개 작품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전남 공예를 빛내준 작가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수 공예품 발굴에 힘써나가면서 공예작가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인사

광주시

- ◇5급 정보 인사 ▲시민소통기획관실 순항환 ▲시민소통기획관실 유만근 ▲여성가족정책관실 김명희 ▲정책기획관실 조현호 ▲정책기획관실 최정준 ▲평가담당관실 박운원 ▲세정담당관실 이수동 ▲행정정보담당관실 김성배 ▲법무담당관실 박인천 ▲법무담당관실 이인재 ▲법무담당관실 전승민 ▲국제협력담당관실 권현준 ▲혁신도시담당관실 류광용 ▲안전정책관실 배상영 ▲재난예방과 오인창 ▲민생사법경찰과 정준호 ▲자치행정과 김영규 ▲총무과 황인재 ▲회계과 백은정 ▲5·18선양과 노희철 ▲5·18선양과 정정록 ▲남북교류협력과 하강삼 ▲사회복지과 김희서 ▲장애인복지과 지역 ▲장애인복지과 정효미 ▲자일순환과 기성철 ▲대중교통과 박건주 ▲대중교통과 방현진 ▲문화기반조성과 체지연 ▲문화산업과 장현정 ▲체육진흥과 김창균 ▲체육진흥과 김태호 ▲일자리정책과 양혜숙 ▲일자리정책관실 임병두 ▲투자총상과 정구수 ▲기업육성과 설향자 ▲민생경제과 강경경 ▲에너지산업과 오종운 ▲스마트시티과 김원길 ▲스마트시티과 민지영 ▲감사위원회 한길욱 ▲공

- 무원교육원 황치열 ▲공무원교육원 이행민 ▲보건환경연구원 이정환 ▲상수도사업본부 김준탁 ▲상수도사업본부 박재홍 ▲상수도사업본부 송태석 ▲상수도사업본부 이희승 ▲종합건설본부 유재정 ▲도시철도건설본부 최인삼 ▲문화예술회관 민병은 ▲노동협력관실 김경주 ▲사회복지과(복지혁신기획단) 임영희 ▲고령사회정책과 강은숙 ▲장애인복지과 조승미 ▲시립도서관 백호승 ▲시립도서관 송경희 ▲시립도서관 김종갑 ▲시립도서관 서우정 ▲기후대기과 박상호 ▲자동차산업과 진용선 ▲에너지산업과 이강재 ▲시립미술관 김광용 ▲생명농업과 최구팔 ▲생명농업과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임진택 ▲일기정양립지원본부 이은 ▲여성가족정책관 배강숙 ▲자일순환과 조정미 ▲재난대응과 정근섭 ▲회계과 박상석 ▲문화기반조성과 박홍철 ▲감사위원회 류홍렬 ▲공무원교육원 김용욱 ▲상수도사업본부 황호연 ▲종합건설본부 이철규 ▲종합건설본부 신규철 ▲문화예술회관 나용선 ▲행정정보담당관실 최갑배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희 ▲보건환경연구원 김선희 ▲보건환경연구원 송형명 ▲상수도사업본부 이대행 ▲남구전출 고영라



농협 출입기자단 ‘필승 코리아펀드’ 가입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농협 출입기자단은 4일 ‘애국펀드’라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단체로 가입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기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가입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에 따른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국내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도철원기자 dous18309@srb.co.kr



삼무스타치과병원, 전곡학비노조 광주지부와 진료협약 삼무스타치과병원(원장 김운규)은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지부장 한연임)와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광주서부경찰, 추석 명절 맞이 소외 계층 위문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전준호)는 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실천 일환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했다.



영광경찰, NH농협손해보험 교통안전물품 전달 영광경찰서(서장 정재운)는 NH농협손해보험(중앙회장 김병연)이 지원하는 ‘교통안전물품 전달식’을 5일 경찰서장실에서 열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이륜차 안전모 150개이다. 전달식은 경찰청의 ‘교통사망사고 확 줄이기’ 및 NH농협손해보험의 ‘농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보급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됐다. 영광-정병원기자 yjic1130@srb.co.kr

무등 게시판 Tel: 606 7725 e-mail: mdilbo@srb.co.kr
보낼곳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SRB미디어빌딩 5층) 무등일보 생활정보담당자 양

- 결혼 ▲정해중(조선대학교병원)·심명자(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대표)씨 아들 인호군, 장병기·이덕심씨 딸 은주양 =7일(토) 오후 2시 광주 서구 마곡동 데일리리빙컨벤션 3층 비스타홀
- 등산 ▲광주산길백리산악회=경남 통영 비진도 28일(토) 롯데마트
-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
- 모집 ▲각화문화회 집(우암병원 옆) 금요일창단=6일(금) 오후 2시부

- 를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지원. 132. 1577-8339
- ▲광주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무료제공·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062-233-0468
- ▲각화문화회 집(우암병원 옆) 금요일창단=6일(금) 오후 2시부

- 터 4시 지휘자 오균영 선생님과 함께 50대 이상 남녀 가곡 합창단. 문의 010-2638-9105
- ▲아무르합창단원=모집인원 남·여 00명, 자격 20세 이상, 연습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광주제일교회. 문의 010-7248-6767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